

역행성 심정지액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문헌증·김기봉·노준량

관상동맥 우회술에 있어서 전방성 심정지액 주입에 의한 심근 보호의 한계성으로 심정지액의 적절한 분포를 위한 역행성 심정지액의 사용이 점차 일반화 되고 있다.

본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1994년 4월부터 1995년 5월까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67례중 55례에서 역행성 심정지액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남녀 성비는 남자가 32명, 여자가 22명이며, 평균연령은 57.2 ± 8.6 세였다. 술전 진단으로 불안정성 협심증이 40례 (73%), 안정성 협심증이 9례 (17%), 심근경색후 협심증이 4례 (7%), 급성 심근경색증이 2례 (4%)이었다. 술전 관상동맥조영술상 3 혈관질환이 35례 (64%), 좌주관상동맥협착이 9례 (16%), 단일 혈관질환이 6례 (11%), 2 혈관질환이 5례 (9%)로, 수술시 대복재정맥 이외에 좌측 내유동맥을 이용한 경우가 49례, 우측 내유동맥의 경우 4례, 좌측 요골동맥을 사용한 경우가 5례, 우측 위대망막동맥의 경우가 1례이었다. 1개소 문합이 2례, 2개소 문합이 4례, 3개소 문합이 8례, 4개소 문합이 34례, 5개소 문합이 4례, 좌주관상동맥 내막절제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가 2례, 2개소 문합 및 좌주관상동맥 내막절제술과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가 1례였으며, 환자 1인당 문합은 평균 2.6 ± 0.7 개 이었다.

심정지액 주입 방법으로는 54례에서 전방성 심정지액 주입으로 심정지를 유도한 후 역행성 심정지액 주입으로 심근 보호를 유지하였고, 역행성 심정지액 주입만으로 심정지 유도 및 심근보호 유지를 시행한 경우도 1례가 있었다. 역행성 심정지액을 간헐적으로 주입한 경우가 19례, 계속적으로 주입한 경우가 36례이었으며, 우관상동맥 문합을 시행하였던 21례의 환자에서는 심정지 유지를 역행성 및 우관상동맥 이식편을 통한 전방성 심정지액 동시주입법을 실시하였다.

수술 사망은 없었으며 수술후 합병증으로, 부정맥이 13례 (24%), 수술후 심근경색증이 8례 (15%), 저심박출증이 7례 (13%), 술후 일과성 신경학적 합병증이 6례 (11%), 술후 출혈이 2명 (4%), 창상 감염, 술후 섬망, 급성 신부전 및 심이지장 궤양 천공이 각각 1명씩 (2%)이었다.